

1

JANUARY
2019 * VOL.34

이달의 HRD 테마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 동향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제9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현장 동향

제2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192명 선정

HRD 통계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연구 동향

정규직 전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Happy New Year

2019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18.12.11.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 -





Cover Story

당신의 땀으로 채운 하루하루가 365일 모여
한 해를 이루었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통권 제34호

발행일 2019년 1월 2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기획실 미래전략팀

전화번호 052-714-8323

구독신청 및 문의 keh4785@hrdkorea.or.kr

인쇄 효민디앤피(051-807-5100)

편집디자인 배소현

이달의 HRD 테마

- 4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2019년 대통령 신년사

- 7 우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오늘을 위하여

정책 동향

- 8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9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10 제9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11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2.9조원

현장 동향

- 12 제2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청년을 위한 청년고용정책, 청년의 손으로!
- 13 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192명 선정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능력중심채용 세미나 개최
- 14 2018 스타훈련교사 9인 탄생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 15 2018년 청년센터 포럼 개최
워크넷 서비스 20주년 국제 워크숍 개최
- 1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발간
찬란한 기술로 대한민국을 빛내다,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 17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HRD 통계

- 18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연구 동향

- 20 정규직 전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일학습병행은 경력개발에 효과적인가?
- 21 일학습병행제 성과진단 및 성과관리
공공취업지원서비스와 노동시장 성과

기관 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지난 12월 11일(화), 고용노동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1월의 HRD테마는 2019년도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2019년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01


고용서비스· 고용안전망 강화



-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실업급여 지급 기간·지원수준 상향
- * 특고 :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
- 근로빈곤층 대상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년)
- 고용서비스 혁신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직업훈련 실시

02


직장 내 갑질· 채용비리 근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근로감독 실시
- 채용상 불공정 행위에 제재 규정 신설 등

03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장 안착



- 최저임금 인상의 불확실성 해소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주 52시간 단축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6가지 역점 추진과제』



1 취업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취업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18년 19조→’19년 23조, 19.3% 증가)

대상	내용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 지원(8만명, 최대 300만원) • 청년 채용기업 지원(18.8만명, 최대 3년간 2,7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25.5만명, 최대 3년간 3천만원) 등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2.5만명, 최대 150만원) • 배우자 출산급여 지원(11만명, 5일분) 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포기 장애인에게 적극적 고용서비스 제공 • 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신중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 • 전직·재취업 기회 확충 등

- 취업계층의 참여를 늘리고,('17년 36.3%→'19년 42%) 직접일자리 지원·직업 훈련 등 확대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정부는 지원 강화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1,083억)'의 지자체 자율성 강화*
*(예) 국비 편성비율(인건비 20%, 직접사업비 65%, 간접사업비 15%) 제한 완화
- '청년구직활동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청년·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지자체-정부 간 연계·협력을 강화
-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
-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
-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맞춤 훈련센터」 '18년 13개소 → '19년 20개소(134억)
- 「구직 포기 중증 장애인 적극적 고용서비스 제공」 '19년 9,600명, 26억(시범사업)
-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

2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

-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고용창출장려금* 확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합리적 개선 추진 등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18년 209억 → '19년 347억
- 최저임금 준수 지도 강화 및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 임금 결정체계 개선 추진
-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취업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



취업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96만명)
3.2조원 ⇒ 3.8조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9조원 ⇒ 11조원



실업소득 지원
7조원 ⇒ 8조원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

구직지원	채용 인센티브	장기근속 유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8만명 최대 300만원 1,582억(신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최대 3년간 2,7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최대 3년간 3천만원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정책 정보, 전국의 취업준비 공간 정보 제공
실시간 상담(일평균 1.5만명 방문, 1.2천명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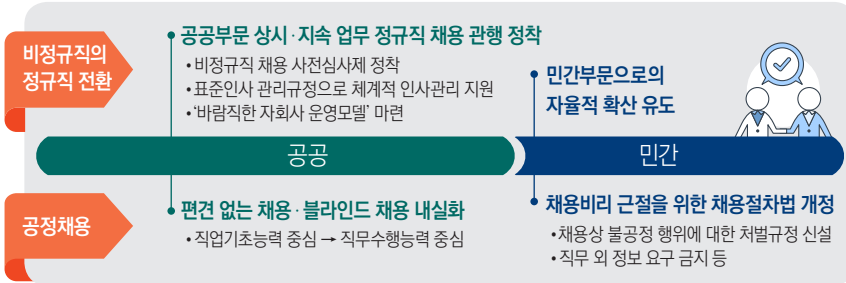
신중년 일자리지원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	재취업 일자리 기회 확충	사회공헌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60세 안착 • 계속 고용 사례 확산 * 계속 고용 노력 의무 부과 및 사업주 지원금 신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일자리 확대 • 신중년 촉화 • 직무능력 향상지원 * 기술기능직/사무관리직 	6.5천명 ⇒ 10천명 '18년 '19년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다양화(2.5만명 ⇒ 3만명), 중소기업 지원강화

③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 근절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 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강요, 금전 등을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회 계류 중)

④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

-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발족 준비 중)」의 논의결과를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할 계획
- *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 정책 제안 가능
-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⑤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일을 통한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
- *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 시범운영('19.4~10월), 중앙·지방·민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마련 등
-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30일) 및 지급수준을 상향하고,(평균임금 50→60%, 19.下 시행),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추진(3개월, 월 30만원)

⑥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

-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
-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큰 지역의 한국폴리텍 대학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
-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
-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19년 10만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계획
- 지식의 확인(검정형)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18년 111 → '19년 143개 중목)
- 교육-훈련-자격-인사관리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 적용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19.上)
- ⇒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19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확대('18년 545 → '19년 775명)
▲ (민간기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18년 700 → '19년 1,300명)



「경제정책의 기조와 틀을 바꾸는 일」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초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혁신」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업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2018년 12월 11일, 교육부



■ 교육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 보고

-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업무보고 주요내용

- ▲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추진
- ▲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확대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 ▲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 ▲ 고졸 취업 활성화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공공부문 고졸채용, 민간부문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등)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 발표

2018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8(화) 세종정부청사에서 대통령과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 개최

■ 업무보고 주요내용

- ① 4개 지역(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 '22년까지 2만 6천개 일자리 창출
 - ② 4개 주력산업군 맞춤형 고도화 전략, '22년 OECD 수준의 부가가치율(30%) 달성
 - ③ 수소경제, 항공, 로봇,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
- * 알키미스트 : 철로 금을 만들려던 그리스 연금술사(Alchemist)들의 실패한 노력이 현대 화학의 시초가 됨

-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 다양한 유형의 모델 발굴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합동 상생 일자리 지원단 신설('19.1Q)
- ▲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 제조업 경기둔화가 뚜렷한 4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확보, 신산업 창출, 사업 전환, 기업유치 등 중점 지원
 - 지자체가 프로젝트 발굴 추진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 정부는 인프라 구축, 제도정비 등 지원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

2018년 1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12.17(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
- '19년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비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

전략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

정책
방향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투자활력 제고
-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 지원
- 소비 · 관광 활성화
- 수출 경제력 강화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핵심규제 혁신
- 주력산업 경제력 · 생산성 제고
- 신기술 ·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경제 · 사회의 포용성 강화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 소득 지원*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
-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 보완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 4차 산업혁명 대비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시장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엄정한 법집행 +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 대 · 중소 상생협력)

16대 과제는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집중 점검 · 관리

Big Project

Big Deal

Big Innovation

Big Trust

2019년 경제전망

구분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2.6 ~ 2.7	2.6 ~ 2.7
취업자증감(만명)	10	15
고용률(% , 15~64세)	66.7	66.8
소비자물가(%)	1.6	1.6
경상수지(억불)	740	640

계층별 일자리 지원

① (청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18년) 9만 명 → ('19년) 18.8만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18년) 15.5만 명 → ('19년) 25.5만 명
-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확대 : ('18년) 675팀 → ('19년) 800팀

② (여성)

- 여성친화적 일자리 : ('18년) 12만 명 → ('19년) 13.9만 명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세제지원 확대 : (동일기업 재취업요건 완화, 경력단절 인정 사유를 현 임신 · 출산 · 육아에 결혼 · 자녀교육 추가)

③ (신중년)

- 경력형 일자리 지원 신설 : ('19년) 2,500 명
-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18년) 3,000명 → ('19년) 5,000명

④ (어르신)

- 노인일자리 확대 : ('18년) 51만 명 → ('19년) 61만 명

⇒ '18년말까지 일자리사업 지침 · 고시 개정 등 집행준비를 완료하고
1월부터 즉시 집행

■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력 양성을 위하여,

-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 · 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하며
- 혁신성장 청년인재(1,200 → 1,400명)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1,000 → 1,300명) 양성을 확대함

■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이전직 직업훈련을 강화 · 병행하고,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10→14개) 및 희망리턴패키지(9천→2.2만명)를 확대함

제9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등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2018년 12월 14일, 일자리위원회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14(금)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등 총3건의 안건을 논의·의결

■ 이번 회의를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하기로 했으며,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효적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

■ 주요내용

- 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 ②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보건 의료 일자리 5.5만개 창출
- ③ 지자체가 자율설계,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강화 추진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진 (‘19년 시범사업 예산 총59.7억원)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8~’22년간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2.6만명, 2,086억원, 행정안전부)
 - 지자체가 구체적 사업을 기획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 「지역기획형」 방식으로 시범 시행(1만명)
 - 지역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19년 대폭 확대하여 본격 추진(2.6만명)
 - 2) 지역기획형 일자리사업 신설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2,500명, 80억원, 고용노동부)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기획, 지역아동 방과 후 학교 지원,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컨설팅 등
 -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유형 신설(1,040억원, 고용노동부)
 - 지자체의 숙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샌드박스형 사업유형 신설
 - 타 일자리사업을 통해 동사업의 제약요인(인건비·자본재 지원불가 등)이 해소되도록 부처 사업*간 연계 활성화 지원
- * 예) 청년친화산단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역일자리 사업 인프라 강화

- 컨설팅·교육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사업부처)
 - 고용정보원에 전담팀 신설(‘19.1월)하여 지자체 일자리사업 컨설팅 제공 (‘19.3월~)
 - 지자체 각 지역일자리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3월, 9월 연 2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전략 및 지원 방안 등 논의

2018년 12월 10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10(월) 제2기 첫 공식행사인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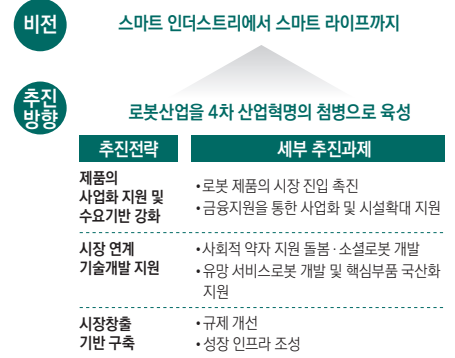
■ 주요안건

〈안건1〉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안건2〉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안건3〉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방안

– 위원회는 이번에 작성된 계획을 토대로, 전문 분야별 과제들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

-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앞으로 2기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큰 방향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및 일자리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

추진방향 및 전략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2.9조원

상반기 65% 집행 목표, 현장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강화

2018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

- '19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9.2% 증가한 22조 9,308억원으로 확정
-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액은 실업소득 유지(7.9조원, 34.5%), 고용장려금(5.8조원, 25.2%)이 가장 크고, 고용서비스(1.0조원, 4.3%)가 가장 적음

〈사업 유형별 일자리예산 증감〉

(단위: 억원, 명, %)

유형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192,312	229,308	36,996	19.2
직접일자리	31,961	37,713	5,752	18.0
직업훈련	20,645	19,610	△1,035	△5.0
고용서비스	9,354	9,867	512	5.5
고용장려금	37,879	57,883	20,004	52.8
창업지원	24,475	25,097	622	2.5
실업소득	67,998	79,139	11,141	16.4

부처별 일자리예산 현황

(단위: 억원)

	합계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	여가부	20개 부처
예산	229,308	160,414	29,790	26,534	2,822	9,748

제2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2018년 12월 11일, 일자리위원회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그간의 성과와 문제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영역 내에서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모델 발굴, 민간단체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축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청년고용정책, 청년의 손으로!

2018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의견을 내기 위해 구성된 「청년고용 정책 참여단 5기」의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결과발표회에서는 ▲지역인재채용제도 ▲내일배움카드제도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청년층 교육훈련 ▲청년에게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 제공 방안 ▲지역 청년일자리정책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방안 등의 새로운 정책도 제안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제안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여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은 그동안 정부와 청년 간의 주요한 의사소통 창구가 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청년고용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기존의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활동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는 정책 점검뿐만 아니라 정책 개선 과정에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숙련 기술 노하우 전수의 최고 전문가, 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192명 선정

2018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12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기계·재료·화학 등 총 11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뛰어난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전문가 192명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였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쌓아온 고도의 숙련기술을 학교 및 중소기업에 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써, 현재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기능한국인, 기능장, 기술사 등 숙련기술인들로 구성된 산업현장교수 1,495명이 자신의 오랜 경험 및 기술노하우를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현장에 전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로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기술 전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산업현장교수가 보유한 축적된 경험과 기술, 성공이야기를 청소년과 기업에 아낌없이 전해 달라.”고 말했다.

분야별 선정 현황('18년 선정 포함)

(단위 : 명, %)

구분	계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식품 가공	건설	디자인	문화 콘텐츠	HRD
인원수	1,888	485	161	66	74	204	236	88	134	53	23	364
비율	100	25.6	8.5	3.4	3.9	10.8	12.5	4.6	7.0	2.8	1.2	19.7

산업현장교수 자격 요건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2.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4.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5. 교육훈련기관 훈련프로그램개발 유경험자
6. 그 밖에 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 등에서 종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능력중심채용 세미나 개최

2018년 1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20일 기업 인사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능력중심채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직무능력중심의 기관별 채용 우수사례와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사례를 공유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미래 인재의 선발 노하우’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미국 템플대학교의 오인수 교수는 직무능력중심의 인재선발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으며, 경기대학교 강순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선결 조건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직무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린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높아지고 스펙이 아닌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8 스타훈련교사 9인 탄생

2018년 12월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은 전문 역량을 갖추고 직업훈련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직업훈련교사 9명을 스타훈련교사로 선발하고, 12월 14일 천안 코리아텍 다산홀에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코리아텍은 훈련품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높은 역량과 성과를 겸비한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홍보함으로써 2013년부터 금년까지 68명을 위촉하였다.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은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후보자들의 강의경력 및 자기계발실적 등을 검토하고 시범강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스타훈련교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과 연계된 훈련기법을 개발하고 훈련과정을 개선하는 등 직업훈련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김기영 코리아텍 총장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종사하는 훈련교사 모두는 우리나라 직업 훈련을 짊어지고 갈 핵심인재”라며 “이들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켜 국민들에 대하여 고품질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십년지계 직업교육(十年之計 職業教育)이라는 신념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지능로봇기술을 개발하여, 1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적용하고 있다’ 라고 2005년 신지식인 성공사례집에 투고하였는데,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의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

- 문진수(2018 스타훈련교사,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8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인 소프트웨어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2월 20일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년까지 교육과정 홍보·자문, 교육생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취업알선 등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교육훈련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때 더 큰 상승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교육·훈련 프로그램(1년)을 선발된 청년(29세 이하 4년제 대졸자)에게 제공(5년간 총1만 명, '18년은 500명 시범 운영)

2018년 청년센터 포럼 개최

2018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9일 「2018 청년센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 담당자, 청년센터 민간 운영자, 청년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정부의 19년도 지원방안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연계방안, 청년센터 현황과 지역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청년공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정동열 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구축TF팀장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현황과 지자체 청년센터와의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자체 청년지원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 전효관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특별강연에서 '생존주의와 자신을 회복시킬 힘'이라는 주제로 청년사업에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였고 문정은 the숲 광주청년센터장과 문유진 서울 양천구 무중력시대 센터장이 청년센터 운영자의 현장감 있는 의견과 센터 운영 노하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을 논의하고, 파트너십도 강화 하는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된다면, 청년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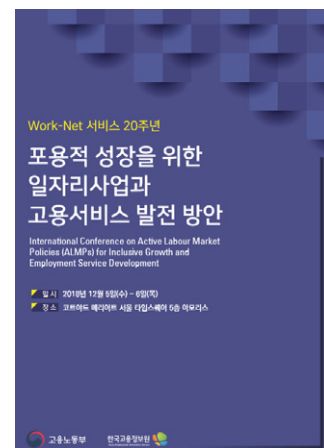
청년센터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스테디룸,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운영 중임

워크넷 서비스 20주년 국제 워크숍 개최

2018년 12월 5~6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5~6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례,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현황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세션1에서는 「일자리 정책 평가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프랑스, 호주, 한국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안 에이두(Ane Eydoux) 프랑스 국립직업전문원(Cnam) 교수는 「프랑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사례발표에서 "고용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2에서는 조나단 바(Jonathan Barr) OECD-LEED 팀장이 사례들을 통해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평생학습 촉진 프로그램, 실직자들을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행시키는 조치, 창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파트너십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세션3에서는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독일, 스위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프랑스의 온-오프라인 공공고용서비스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세션 4에서는 일자리 정책과제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각국 발표자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발간

2018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1,547,741명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재직자 응시자 수는 470,935명으로 2016년 대비 22,889명(5.1%)이 증가해 경제활동 상태별 유형 중 가장 많은 수가 증가했다. 경제활동 상태별 구분에서 기사 등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등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산업기사와 기능사 등급은 학생이, 기사 등급은 재직자가 가장 많이 응시했으며 특히 지난해 기사 등급에 응시한 재직자 수는 141,700명으로 2016년 대비 10,178명(7.7%)이 증가했다.

응시목적은 3개 등급 모두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응시비중이 가장 컸으나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산업기사에서 기사로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자기개발 또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응시비중이 증가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자격의 가치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을 높이고 신산업분야의 자격종목도 적극 발굴해 산업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는 수험자 동향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정보 사이트 큐넷(www.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찬란한 기술로 대한민국을 빛내다,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2018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19일 2018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기능한국인, 찬란한 기술로 대한민국을 빛내다」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기집에는 2017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선정된 ‘이달의 기능한국인’ 12명의 기술인생에 대한 생생한 성공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이 마련한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기능한국인들과 특성화고 장학생들은 멘토-멘티로 맺어져 추후 활발한 기술전수와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학생 소속 특성화고와 기능한국인회 회원사 간 산학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여 기능한국인 회원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숙련기술자 양성 등을 위한 교육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능한국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기능한국인 등 기술인들이 우대받는 사회, 학벌이 아닌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11월 기능한국인 (주)에스앤디 이엔지 어재동 대표

12월 기능한국인 (주)현대도금 윤희탁 대표 선정

2018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5년간 금형설계 및 제품개발에 종사해온 (주)에스앤디 이엔지의 어재동 대표를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41번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어린 나이에 도금 기술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 무려 41년의 경력을 가진 표면가공기능장 (주)현대도금 윤희탁 대표를 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42번째)으로 선정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기능한국인 등 기술인들이 우대 받는 사회, 학벌이 아닌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소개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41번째) - (주)에스앤디 이엔지 어재동 대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전기 기술자 형들을 보고 자연스레 기술인의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면함과 노력이 빛을 발하여 1년만에 자격증 취득과 최연소 기계가공기능장이란 타이틀로 (주)에스앤디 이엔지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00년 기업을 목표로 제2의 어재동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NCS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에스앤디 이엔지 어재동 대표는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까지 취득해 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기능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NCS,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맞춤형 인재 양성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제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42번째) - (주)현대도금 윤희탁 대표

“가난한 생활에 도금 공장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 도금기술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배운 기술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이뤄준 도전정신으로 현대도금이라는 전도 유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제 작업실은 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현대도금 윤희탁 대표는 6개의 특허기술을 가진 전도 유망한 기업인으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사용된 금메달 전량을 수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8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8



「2018년 노동시장 개관」

15~64세 인구 감소, 건설 및 제조업의 생산둔화, 경기둔화까지가 이어지면서 2018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1~10월 기준)대비 97천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한 60.7%, 실업률은 0.2%p 증가한 4.0%를 보임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이 회복되고 있고, 경력단절연령대(35~44세) 여성의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40, 5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함

「2018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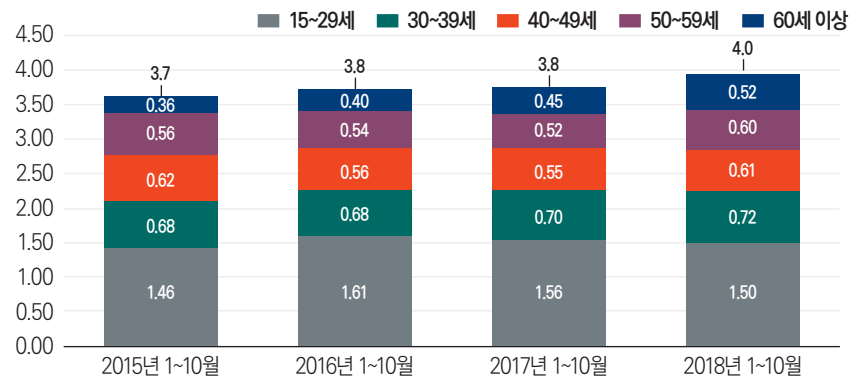
■ 40대, 50대 중심으로 나타난 고용둔화

- 40대 실업자의 증가는 전직 제조업 실업자가 7천명 증가하여 제조업의 부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50대 실업자의 증가는 22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일용직 실업자(16천명 증가)로 건설업, 생산직 위주로 나타나 올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둔화를 반영하고 있음

■ 20대 후반 고용률 증가

-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1~10월 평균 40천명 감소), 음식·숙박업(26천명 감소)에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고용률 감소폭 완화(15~24세 3분기 1.6%p 감소, 10월 26.2%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 20대 후반 취업자는 109천명 증가하였고, 실업자 4천명 감소, 실업률도 9.0%로 0.5%p 감소함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1~10월 평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경력단절연령대 기혼 여성 고용률 증가

- 30대 초반의 기혼(유배우자) 여성은 고용률이 52.3%로 2.3%p 증가하였고, 30대 초반 미혼 여성은 5천명 증가했지만 취업자는 6천명 감소하여 고용률이 1.5%p 감소함

■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발

- 경제활동의 주축인 15~64세 인구의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함께 증가(1~10월 평균 고용률 2016년 30.7%, 2017년 30.7%, 2018년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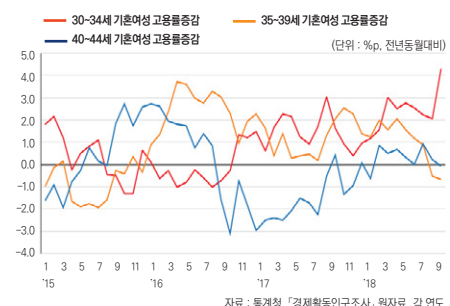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6. 1~10	2017. 1~10	2018. 1~10
생산가능인구	43,578	43,907	44,159
(증가수)	(372)	(328)	(252)
경제활동인구	27,420	27,757	27,907
(증가수)	(262)	(337)	(150)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2
취업자	26,380	26,708	26,804
(증가율)	(0.9)	(1.2)	(0.4)
(증가수)	(224)	(328)	(97)
(남성)	(72)	(137)	(3)
(여성)	(151)	(191)	(94)
고용률	60.5	60.8	60.7
(남성)	(71.2)	(71.2)	(70.9)
(여성)	(50.3)	(50.8)	(50.9)
실업자	1,040	1,049	1,103
실업률	3.8	3.8	4.0
(남성)	(3.9)	(3.9)	(4.0)
(여성)	(3.7)	(3.6)	(3.9)
비경제활동인구	16,159	16,150	16,252
(증가수)	(110)	(-9)	(102)
생산가능인구	36,835	36,862	36,798
(증가수)	(143)	(27)	(-64)
경제활동참가율	68.7	69.3	69.4
고용률	66.0	66.6	66.6
(남성)	(75.8)	(76.2)	(75.9)
(여성)	(56.1)	(56.8)	(57.1)
취업자	24,312	24,548	24,501
(증가수)	(148)	(237)	(-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4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고용둔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임시, 일용,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 상용직 증가 흐름은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42천 명 증가해 전년대비 둔화(2017년 265천 명 증가)
- 임시직의 감소는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83천명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

〈중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6. 1~10	2017. 1~10	2018. 1~10
전 체	224	328	97
임금근로자	292	265	142
상용직	365	361	346
임시직	38	-139	-132
일용직	-111	43	-72
비임금근로자	-69	63	-4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8	22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	57	-88
무급가족종사자	-32	-16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주 :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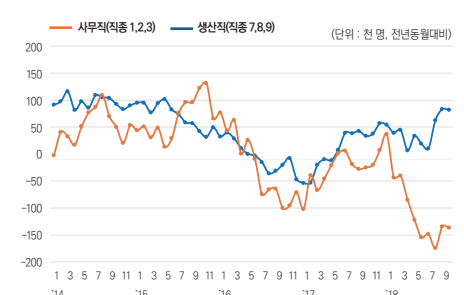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 감소

- 2017년도 내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8년 1월 106천 명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어 4월부터 감소 전환한 결과, 1~10월 평균 46천명 감소

■ 전통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난 서비스업 고용 위축

- 전통적인 내수서비스업 부문인 도·소매, 숙박·음식을 포함해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은 고용이 감소, 건설경기 둔화 영향으로 부동산업도 감소(-15천 명)

제조업 전체 사무직 및 생산직 취업자 증감 현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건설업 취업자 둔화

- 2018년에는 건설수주가 2분기 9.2%, 3분기 6.4%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건설업 업황의 둔화에 따라 취업자 증가 규모도 2분기 16천 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지만 3분기에는 다시 45천 명으로 커지면서 아직까지는 후반기 공사로 전문건설업 등에서 고용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임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고용전망」

- 제조업 고용은 미중 무역 마찰 등 대외여건이 변수, 업태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소매, 음식, 숙박 등 내수서비스업 고용은 어려울 전망
- 내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2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적으로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예상됨
- 자영업자의 비용압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일자리 격차 완화,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인구감소 대비 등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함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 천 명)

	2018			2019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8	2.6	2.7	2.7	2.6	2.7
15세 이상 인구	44,115	44,250	44,182	44,355	44,489	44,422
경제활동인구	27,794	27,996	27,895	27,900	28,168	28,034
경제활동참가율	63.0	63.3	63.1	62.9	63.3	63.1
취업자	26,651	26,988	26,820	26,730	27,166	26,948
(증가율)	0.5	0.2	0.4	0.3	0.7	0.5
(증감수)	142	48	95	79	178	129
실업자	1,143	1,008	1,076	1,170	1,002	1,086
실업률	4.1	3.6	3.9	4.2	3.6	3.9
고용률	60.4	61.0	60.7	60.3	61.1	60.7
비경제활동인구	16,320	16,253	16,287	16,455	16,322	16,388

주 :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2018.10), 「경제전망보고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연구자 : 장주희



■ 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요구를 분석, 그리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법·제도 및 현황,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를 분석·제시
- 정책 제언
 - ▶ (지원방안) ①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사업 활용, ② 정규직 전환 근로자 및 기관 대상의 특화된 사업 운영, ③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상 교육비용 지원
 - ▶ (추진방안) ① 인적자원관리 관련 선결과제 해결, ② 정부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인적자원개발 요소 반영, ③ 정규직 전환 컨설팅에 인적자원개발 포함, ④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⑤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일학습병행은 경력개발에 효과적인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iew, 2018

연구자 : 김대영



■ 목적

- 일학습병행이 경력개발에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일학습병행에서의 경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예)을 제시함

■ 주요내용

- 일학습병행에서의 경력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제시
- 일학습병행이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자와 일학습병행과 무관한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경력개발 현황 비교 분석(현대적 경력 태도, 경력개발 행위, 경력 개발 성과 등)
 - ▶ 분석 결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이수하는 것은 경력개발에 도움이 됨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보다 강화·개선하거나 새로운 개입 활동들을 기획·실행 할 필요가 있음

일학습병행제 성과진단 및 성과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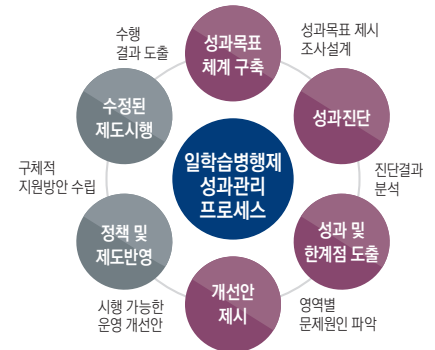
■ 목적

-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진단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진단
- 일학습병행제 참여주체별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일학습병행제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제언

■ 주요내용

-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 체계 보완 및 성과진단 모형 구성
- 일학습병행제 참여주체별 성과관리 지표 분배 및 체크리스트 개발
- 일학습병행제 참여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일학습병행제 성과 제고를 위하여 인프라 영역, 학습근로자 영역, 기업 영역, 국가 영역, 참여주체간 협업체계 분야에 있어 16개의 추진과제 제시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 체계



공공취업지원서비스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고용정보원, 2018

연구자 : 김두순, 박진희, 이정아



■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와 직접적인 취업알선서비스의 고용성과를 미·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약계층과의 관계 그리고 취약계층 및 직업훈련과 결합하였을 때 발생하는 미시적 고용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취업지원서비스가 구직자의 취업확률, 임금, 고용지속성에 대한 고용성과를 분석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임금근로자와 실업자, 직업훈련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경유한 노동시장의 성과를 검토함
- 공공취업지원서비스는 저임금 부문의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서비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서비스를 받은 저임금 집단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유인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연계성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하나인 직업훈련의 취업효과를 높이며 인적 자원 재배치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

기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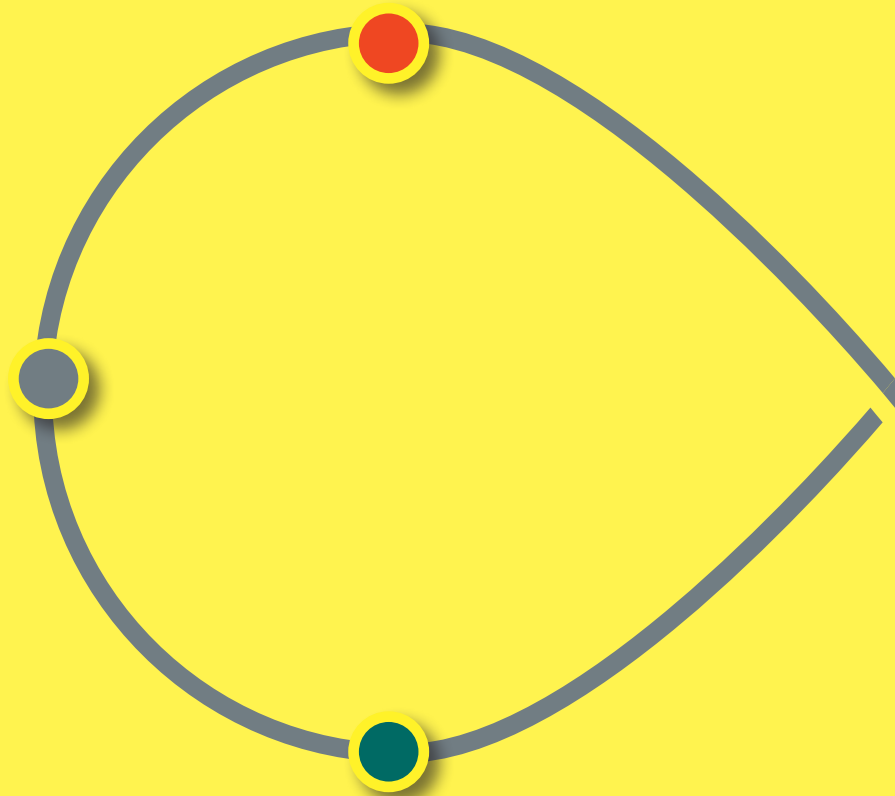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1차)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 공모계획 공고(11.27~12.11)
-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공고(12.1)
- 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192명 선정 및 위촉식(12.12)
- 2018년 스타훈련교사 위촉식(12.14)
- 2018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기능한국인, 찬란한 기술로 대한민국을 빛내다」 발간 기념식 및 11월·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12.19)
-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12.20)



- 2019년도 상반기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공고(12.12)
- 2018년도 HRDK 대국민 혁신제안 아이디어 공모 심사결과 발표 (12.14)
- 2018년도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접수(1.3~1.30)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기술위원 공개모집(~1.18)
- 2019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연중 수시)



- 워크넷 20주년 기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워크숍 개최(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12.5~12.6)
- 한국고용정보원 조직개편(1.2)
-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1월 중)

2019
01



한국폴리텍대학

www.kopo.ac.kr

- 차세대 스마트 정보시스템 1단계 오픈(1.2)
- 2018년도 정부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워크숍(1.16~1.18)
- '19학년도 P-TECH 운영 캠퍼스 담당자 워크숍(1.24~1.25)
- 1월 확대 경영전략회의(1.25)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ww.koreatech.ac.kr

- 코리아텍 인권경영 선포식(12.10)
- 코리아텍 2019학년도 정시 코엑스 박람회(12.13~12.15)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18 직업훈련 심사평가기관 국제포럼'(12.20)
- 코리아텍 2018학년도 동계 국외봉사('18.12.24~'19.1.4)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019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 이의신청 접수(1.7~1.18)
 - 조건부심사 접수(1.7~1.28)
- 2019년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심사 실시(1월 중)
-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1.2차 모니터링 및 이수자평가(상시)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2018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4차 워크숍(12.17~12.18)
- 진로교육 한마당(12.18)
- 제2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12.18)
- 2018년 제4차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업무 담당관 정례 회의(12.19)
- 몽골 VETP NGO와의 상호 업무협력 협약(12.24)
- 사우디아라비아 TVTC와의 상호 업무협력 협약(12.27)



기



능

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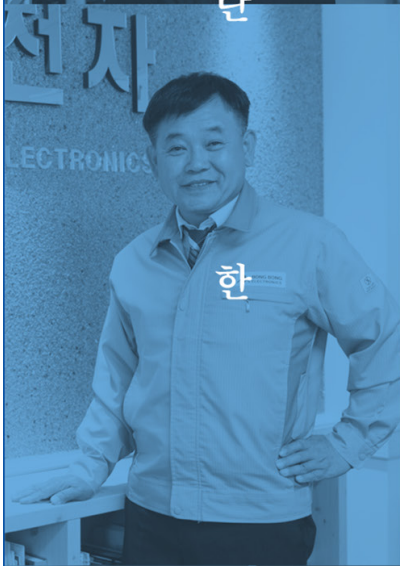


인

!



찬



한

기술
한국인!
찬찬한 기술로
대한민국을 빛내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

술



로



대



민



을



내

다